



보도자료

2022. 2. 6.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담당자 : 조형연 선임팀장 (010-3933-3949)

기본사회위원회, ‘줍깅’ 통해 기본사회 공감대 확산

-17곳 광역시도 3,000여명 참여, ‘이색 선거운동 보람 느껴요’ -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줍깅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줍깅(조깅하면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이재명 후보의 부산 연설을 함께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거리가 지저분해 졌을 것으로 생각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부산기본사회위원회 대표단과 특보단 등 50여명이 참여해 해운대 일대를 말끔히 청소했다. 부산 기본사회위원회의 줍깅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

줍깅은 쓰레기를 줍는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을 때 강원기본사회위원회 고성상황실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대신 제설장비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시내 인도를 깨끗이 치웠다.

인천기본사회위원회는 벌써 몇 주째 주말마다 줍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변화가,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된다. 경북과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는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줍깅이 활발하다. 충청권 역시 매주 장소를 달리해 줍깅이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된 줍깅에는 전국적으로 17곳 광역시도에서 3,000여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가치는 바로 기본을 확실히 하는 것이고 줍깅은 우리 위원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며 “헌혈과 새해 거리인사, 줍깅, 지역화폐 활성화 등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한영향력 캠페인이 부디 국민들의 가슴에 꼭 전달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끝)

[첨부] 현장 사진





